

국회 4년째 비정상 개회…밀린숙제 산더미

여야 8월 국회 빈손 마무리 후 100일간 대장정 돌입

특수활동비·노동 개혁 등 총선 앞두고 ‘기싸움’ 예고

국회는 1일 오후 개회식을 하고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의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40주년을 기념해 단체사진 촬영과 기념 음악회도 열었지만 ‘4년째 비정상 개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막판 특수활동비 심사 강화를 위한 예결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또 넘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회식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예산 처리 전까지 예결위 위원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특수활동비 관련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 소위를 만들지, 관련법을 개정할지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준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경찰청·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특수활동비를 나눠 갖는 점을 거론하며 “상임위 단계의 심사만으로는 전체를 볼 수 없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주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화하자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맞섰다.

특수활동비 소위라는 정치 쟁점에 발목이 잡혔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밀린 숙제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경과보고서는 아직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제 궤도로 들어서지 못하면서 정기국회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여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경제 활

성화 관련 법안, 야당이 내세우는 재벌개혁과 조세 형평성 강화 법안들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다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조차 미완 상태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증인·참고인만 무더기로 요청해 ‘호통 국감’, ‘수박 겉핥기 국감’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려 ‘20대 총선 전초전의 성격’까지 띠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기선잡기 싸움을 예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다짐하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처럼 19대 국회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던 다짐과 정반대로 4년 내내 구태를 답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출범 첫해인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정기국회 시작부터 삐걱댔다. 특검법에 발이 묶여 2011년 결산안은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이듬해에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한 달

을 허비하면서 결산, 대정부 질문, 국감, 예산 심의 등 모든 일정이 파행했다. 지난해 역시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기국회는 한 동안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올해 역시 개회식은 열리지만 특수활동비 소위에 대한 여야 대치로 진통과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기회 회기를 마치는 날 19대 국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한 번했다는 자괴심을 나누도록 하자”며 “국민의 평가가 좀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일 오후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본청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非文’ 잦은 만남

안철수·김한길·박원순·박영선 ‘공정성장 토론회’ 한자리



안철수

김한길

박원순

박영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당내 비문(非文·비 문재인) 인사들이 1일 국회 ‘공정성장 토론회’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서, 문 대표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연출해 주목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전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기업의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성장론으로 불충분하다”고 평하면서, 공정한 제도 확립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내놔다.

아편 내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 시장도 서울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성장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상암 DMC 등 융복합 투자를 통해 성장의 틀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힘이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전문분야인 재벌개혁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그는 “재벌 문제를 손대지 않고 선진경제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남북 군사적 긴장고조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표의 ‘한반도 신경경제지도’에 대한 대응도 이어졌다. 안 전 대표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공동 경제발전의 길을 가는 ‘동북아경제발전론’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연해주에 방문한 일을 거론하면서 “조선의 영토였던 이곳을 다시 찾을 수는 없지만, 경제영토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며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성장 해법 찾기’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는 안 전 대표가, 과거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다시 초대해 성사됐다. 토론회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당 안팎에서는 신당론 등 원심력이 여전한 상황 속에 비주류의 주요 인사들의 접촉이 활발해 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약일언중천금’

광주 서구를 보선 낙마 정승 새누리 당협위원장, 국비 13억 확보

지난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광주 서구에 출마해 낙마했던 정승 새누리당 서구를 당협위원장이 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비를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서구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원활히 추진하지 못했던 화장4동 공용주차장 신규 설치 7억5000만원과 서창고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등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국비 예산 12억5000만원을 정 위원장이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정 위원장이 지난 4·29보궐선거 때 서구를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한 사업이다.

관료 출신인 정 위원장은 그동안 쌓아온 중앙부처 지인들을 통해 국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정4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매입 등 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추진돼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창고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서구 서창동 600번지 일원 영산강 둔지)은 총 8만㎡ 규모로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농구장 4면, 족구장 4면을 비롯해 주차장과 화장실 등 부대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을 통해 고질적인 도시 주차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개특위 가동 했지만…입장차 여전

지역구-비례의원 의석 비율·권역별비례제 이견 못 좁혀

국회는 애초 8월말까지 활동기로 했던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비롯해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를 재구성, 오는 11월15일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개특위가 다시 가동되게 됐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선거구 획정작업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3개 정당으로부터 선거구획정에 대한 3당의 입장을 들었으나 각 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 여론을 내세워 현행 300명 유지를 주장했지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현행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은 따르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를 감안해 늘어나는 지역

선거구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점차 늘려야 하고 적어도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54석의 비례 의석이 감소해서는 안 되며 지역구를 늘리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의당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에 얽매이지 말고 비례대표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며,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선거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에도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

과 정의당은 도입을 요구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대체로 비례대표 의원 감축에는 반대하고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준한 선거구획정위원은 “농·산·어촌(출신)을 비례대표로 많이 추천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대표성이 많이 보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성대 획정위원도 “농어민은 비례대표를 통해 대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까지 국회 정개특위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까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합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 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리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